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이창호



연구보고 20-R21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_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선거권연령하향을 계기로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4.15 총선에서 이들의 정치참여행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를 탐색하였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실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18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만18세 청소년 8명을 인터뷰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얻었다. 분석결과,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해보거나 이질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가 정치참여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정치동아리활동과 SNS를 통한 정치정보획득, 온라인대화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면접결과 청소년들은 수동적으로 정치정보를 접하고 선거관련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했다. 고3이라는 특성상 입시에 많은 관심을 쏟다보니 정치정보를 접할 기회를 자주 만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치참여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거교육확대, 정치토론의 활성화, 자기주도적 청소년정치참여의 강화, 정치교육에 관한 원칙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4.15 총선에서 이들의 정치참여행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를 탐색하는지를 목적으로 함. 아울러, 18세 선거권 실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참여의 정의와 유형을 살피고 청소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봄.
- 만18세 청소년대상 양적, 질적 연구
청소년의 정치참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한 고등학교 3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투표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 18세 유권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전문가자문

청소년참여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이 분야에 능통한 학계전문가 등 9명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받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3. 주요결과

- 선거기간동안 선거활동을 조사한 결과 친구나 가족 등 주위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3%로 가장 높았음. 정당이나 후보자의 웹사이트나 SNS 등을 접속하는 활동도 전체응답자 중 34.7%가 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을 찾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방문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선거자원봉사활동, 후원활동, 정치집회나 연설회 등 오프라인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하였음. 온라인 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관련 정보를 퍼나르거나 공유하는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 분석결과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해보거나 이질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가 정치참여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음. 즉 정치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타인의 의견과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치관련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만큼 시사적인 이슈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를 논의하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면접결과 청소년들은 수동적으로 정치정보를 접하고 선거관련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했음. 고3이라는 특성상 입시에 많은 관심을 쏟다보니 정치정보를

접할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음. 이제 만18세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진 만큼 학교에서 선거와 관련한 상세한 교육을 관련 교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제언

- 이제 우리사회도 만18세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교과과정을 통해 선거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번 선거의 경우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고3학생들은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토론이 일상화돼야 함. 즉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지닌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만 특정입장에 갇혀 편협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특히 SNS의 확산으로 태도극화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즉 어떤 사안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들은 무조건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소통되는 정치적 토론은 필요함. 또한,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토론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이를 주의깊게 경청하는 관용적 태도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정치동아리를 활성화하거나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정치토론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은 문화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에 국한돼 왔음.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비교적 소홀하였음. 18세 선거권을 계기로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가령, 모의선거교육프로그램이나 시사/정치토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공모사업시 청소년정치참여의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시설에서 시군구의회나 지자체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정치교육과 참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초 선거연령하향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정치권이나 학교 할 것 없이 매우 혼란스러웠음. 이제 우리사회도 독일처럼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관한 큰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가령, 정치교육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큼. 즉 1976년 당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진영의 정치인들과 교육자들은 보이텔스바흐라는 소도시에 모여 정치교육의 큰 틀에 합의했음(장은주, 2017). 이 합의에 의하면, 교사는 어떤 수단을 써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해서는 안되고 논쟁적인 정치사안은 수업시간에도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임. 이 합의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향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모여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청소년유권자들이 선거의 의미, 선거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매우 필요함. 최근 들어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 강화되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어 선거단원 교육시 선거보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18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가령, KBS 시사프로그램과 같이 비중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패널로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도 방송에 담을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언론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함. 청소년정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주장과 이들의 목소리를 언론기관이 충분히 보도해야 정치권에서 청소년문제나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20-R21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4
- 3.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 9
- 2.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11
- 3. 청소년 정치참여 요인 15
 - 1) 미디어 요인 16
 - 2) 정치대화 18
 - 3) 정치심리적 요인 19

III. 온라인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 1. 온라인설문조사 25
 - 1) 표집방법 25

2) 조사문항	26
3) 조사결과	28
2. 면접조사	43
1) 면접참여자	43
2) 면접결과	44
3. 소결	59

IV. 선거연령하향에 따른 청소년정책방안

1. 자문진	63
2. 자문내용	64

V. 정책제언

1. 선거교육 확대	77
2. 정치토론의 활성화	79
3. 자기주도적 청소년정치참여의 강화	80
4.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	82
5. 정치교육에 관한 원칙 정립	83
6.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적 이해 강화	85
7. 청소년참여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기능 강화	86

참고문헌	89
------------	----

부록

1.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 조사	99
2. 만 18세 유권자 대상 면접 조사	108

표 목차

표 II-1 경기도 고등학생의 정치적 행동	12
표 III-1 응답자 인적 사항	26
표 III-2 TV뉴스 및 선거토론 이용 정도(%)	30
표 III-3 SNS 이용 정도(%)	30
표 III-4 포털뉴스 이용 정도(%)	31
표 III-5 유튜브 이용 정도(%)	31
표 III-6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선거운동 권유(% , N=178명)	34
표 III-7 선거관련 대화(%)	35
표 III-8 이견추구경험(%)	36
표 III-9 청소년의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40
표 III-10 미디어이용과 정치참여와의 정치대화 매개효과	42
표 III-11 면접참여자 인적 사항 및 인터뷰 일시/장소	43
표 IV-1 전문가 인적 사항	64

그림 목차

그림 II-1. 촛불집회 참여 횟수	12
그림 II-2.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	13
그림 II-3. 연령대별 투표율	14
그림 III-1. 후보선택기준	28
그림 III-2. 선거정보이용매체	29
그림 III-3. 선거활동경험(%)	32
그림 III-4. 선거활동참여빈도(%)	33
그림 III-5. 학교안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응답률(%)	37
그림 III-6. 정치관련 활동경험(%)	37
그림 III-7.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38
그림 III-8. 정치대화를 통한 매개효과	42
그림 IV-1.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73
그림 V-1. 청소년정치참여과정	8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가입도 가능하며 교육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연초 정의당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수만명의 고등학생들이 4월 15일 실시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이같이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게 됐고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추게 됐다.

선거연령하향을 계기로 청소년의 제도적 참여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기회의 부족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선거연령하향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정치권이나 학교 할 것 없이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즉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기회는 마련됐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바른 투표방법과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사례 등을 게시하여 18세 청소년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 토론회에서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모의선거 등 참정권교육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1.30.). 이런 상황에서 일부단체는 청소년 참정권으로 인해 교실이 정치화 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관한 큰 틀이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거권연령하향을 계기로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정치의식이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정치참여행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를 탐색하는지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실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활동시설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높여 청소년의 시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정치참여의 의의, 현황,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 정치참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청소년정치참여현황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디어, 정치토론, 정치심리적 변인으로 나눠 고찰할 예정이다.

2) 청소년 정치참여실태조사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한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선거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3)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 방안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얻어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참여의 정의와 유형을 살피고 청소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 청소년대상 양적, 질적 연구

청소년의 정치참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한 고등학교 3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투표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 18세 유권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전문가 의견수렴

청소년참여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이 분야에 능통한 학계전문가 등 9명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받아 청소년들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청소년정책포럼 개최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란 주제로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학계, 현장전문가들의 논의를 수렴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
- 2.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 3. 청소년 정치참여 요인



본 장에서는 청소년정치참여의 의미와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할 것이다.

1.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

정치참여는 정부의 정책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행동을 의미한다(이재철, 2019). 일반적으로 정치참여유형은 참여절차와 방식의 제도화에 따라 통상적 참여와 비통상적 참여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영인, 2017). 전자는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보편화된 선거를 통한 참여방식이다. 후자는 집회나 시위, 서명운동, 불매운동참여와 같이 비제도화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참여형태를 의미한다. 투표나 정당참여와 달리 비통상적 참여에는 참여자의 높은 자발성이 요구된다(이재철, 2019). 김한나(2016)는 정치참여유형을 크게 제도적 참여, 저항적 참여, 표현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제도적 참여는 선거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참여방식이고 저항적 참여는 집회나 서명 등 정부나 국가, 정치인을 목표로 한 저항적 행위를 일컫는다. 표현적 참여는 인터넷토론이나 SNS의 프로필 바꾸기 등 공동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정치적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한 행위를 의미한다. SNS의 발달로 온라인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표현적 참여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즉 해시태그가 온라인시위의

한 형태로 부각되고 있고 청와대나 정부부처 등 온라인청원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공동체의 주체인 시민이 자신의 요구를 공동체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고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로이다(김영인, 2017). 즉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전제로 구성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참여는 또한 시민성함양의 기제가 될 수 있다. 김영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의회활동참여정도는 정치효능감, 정치신뢰, 관용, 참여의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청소년의회와 같은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이 함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정치참여를 통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2008년 5월 2일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집회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 중 일부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민주주의보다 더 많은 것을 현장에서 얻었다고 말했다(이창호, 정의철, 2008).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즉 책을 통해 배운 민주주의를 집회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그동안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정치활동영역이 제한되었다. 오히려 집회나 서명운동과 같은 비통상적 참여활동이 정치참여의 주된 활동이었다. 특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은 두드러졌다. 그들은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적 항의를 표시하며 공직자에 대한 압력행사도 펼친다(김효연, 2018). 하지만, 이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이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연구기관들의 연구는 주목해볼만하다. 가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정치의식 및 참여를 연구하기 위해 고등학생 1,43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이창호, 2017).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국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평소 SNS와 포털뉴스, TV뉴스를 통해 정치문제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고 있었다. 또한 친구나 부모와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해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정도도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정부, 정당, 국회, 언론에 대한 신뢰는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디지털세대인 청소년들에게 SNS는 다른 매체들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고 정치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채널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19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회 참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에 달했고 온라인공간에 의견을 작성해보지 않은 경우도 68%에 달했다(남미자외, 2019). 또한, 76.9%의 학생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유인물, 대자보,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작성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본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실 선거연령이 하향되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은 투표를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거리집회나 시위 등 비관습적 정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교의 통제나 불이익 등의 우려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표 II-1 경기도 고등학생의 정치적 행동

(명, %)

구분	한번도 없다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한주에 1-2회	한주에 3회 이상
온라인공간에 의견 작성	835 (68)	172 (14)	133 (10.8)	51 (4.2)	37 (3)
공개된 장소에 의견 작성	944 (76.9)	138 (11.2)	96 (7.8)	29 (2.4)	21 (1.7)
피켓팅, 집회, 거리행진 등에 참여	911 (74.2)	172 (14)	91 (7.4)	33 (2.7)	21 (1.7)
전체	2,690 (73)	482 (13.1)	320 (8.7)	113 (3.1)	79 (2.1)

* 출처: 남미자, 김영미, 손어진, 장아름 (2019). 민주주의 실현조건으로서 청소년정치참여확대방안, 95쪽

2016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농단사건 때도 수없이 많은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지만 청소년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7%가 촛불집회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창호, 2017). 1회 참여한 경우가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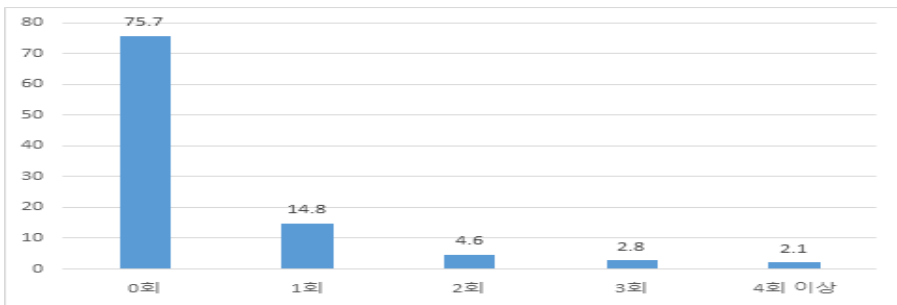


그림 II-1. 촛불집회 참여 횟수

* 출처: 이창호(2017).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연구, 26쪽 표 재구성.

아직도 청소년을 사회의 공동체구성원이자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33.6%)을 가장 많이 꼽았다(김영지, 김희진, 2019).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도 2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21.1%),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의 부재(11.6%) 순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시민의 주체이자 정치적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업부담을 줄임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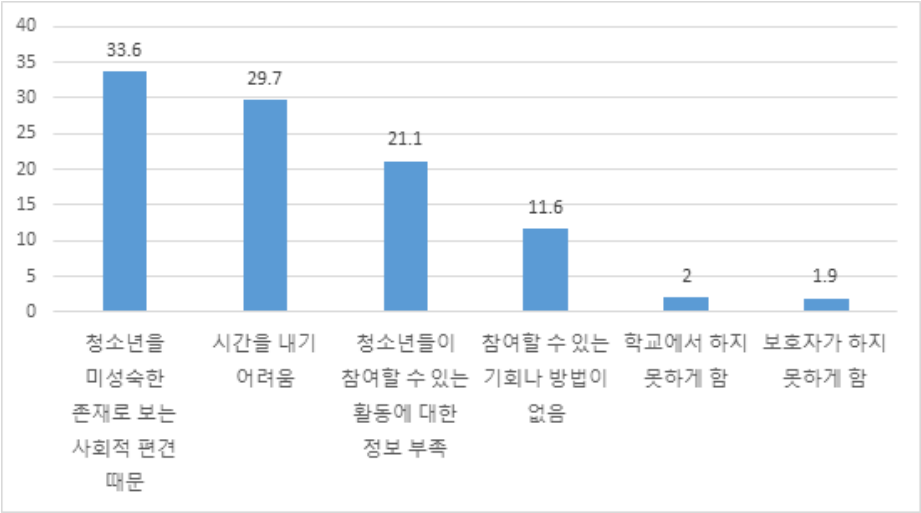


그림 II-2.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

* 출처: 김영지, 김희진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기초분석보고서, 153쪽.

학교내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다. 가령, 쏫볼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가 전국의 중, 고등학교 53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4.8%가 정당 및 정치단체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강재구, 2020.3.30.).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나 주장을 표현하거나 정치활동을 하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학생유권자의 참정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바꿀 것을 일선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다(구미현, 2020.2.25.). 만18세 청소년의 선거활동 및 정당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된만큼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이 안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젊은층의 투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율은 58.0% 였으나 19세 투표율은 53.6%로 낮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 전체 연령대 중에는 60대(71.7%)와 70대(73.3%)의 투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대(52.7%)와 30대(50.5%) 등 젊은층의 투표율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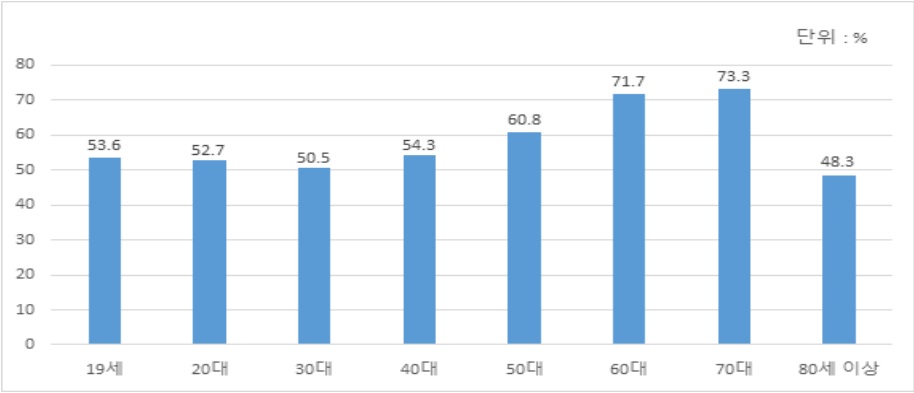


그림 II-3. 연령대별 투표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 7.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결과 공개, 2쪽.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록 군산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청소년들은 투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내용(35.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과나 비리연루도 31.5%로 높았다(정성학, 2020.4.6.). 반면, 정치이력은 17.6%로 나타났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은 8.0%에 그쳤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정책과제는 청소년관련예산 확대, 학생자치활동확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무료화가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며칠 앞두고 만 16세-21세 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도덕성과 청렴성 등 인성을 언급하였고 공약실천, 공정함 및 신뢰성, 공익추구의지 순이었다(고희진, 김상범, 2020.4.9.).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청년실업, 부정부패, 공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자신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언론이 가장 높았고 부모와 친구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당보다는 정책공약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활동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많이 사용되길 원했다.

3. 청소년 정치참여 요인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자원모델과 시민자발성모델,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둔 보상이론 등이 있다(김영인, 2017; 민희, 윤성이, 2016) 자원모델은 교육, 소득, 나이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상이론은 참여의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시민자발성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은 참여의 물질적 기반인 자원, 정치적 관여, 동원네트워크를 중시한다. 이 모델은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자원뿐 아니라 시간과 같은 자원도 중요하게 고려한다(Pattie, Seyd, & Whiteley, 2003).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참여를 위한 시간과 돈이 충분하고 정치적 관심이나 효능감이 높으며 주위사람들로부터 참여권유를 받을 때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자본모델도 정치참여와 관련이 높은 이론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동호회나 지역사회모임 등 자발적 모임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Pattie, Seyd, & Whiteley, 200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미디어, 정치토론, 정치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디지털정보화시대 미디어는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관심을 비롯한 정치적 관여는 정치적 참여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1) 미디어 요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정보화세대인 청소년들의 경우 SNS를 비롯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뉴스나 시사정보를 접한 응답자들은 SNS(34.6%), 포털(27.8%),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동영상플랫폼(19.9%) 순으로 접속 기기를 언급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온라인동

영상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중학생은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고등학생은 포털을 가장 많이 접속하였다. 즉 중고등학생의 경우 SNS나 포털을 통해 뉴스나 시사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기기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뉴스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소셜네트워크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시민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은 SNS와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고 대안적 참여(집회, 서명운동 등)에도 적극적이다(김은미, 양소은, 2013). 특히 개방, 상호작용, 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의 확산은 시민참여의 능동성을 부여했다는 면에서 참여민주주의 확산의 긍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도묘연, 2015). 또한, SNS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및 선거참여의 기회를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도묘연, 2015). 실제로 중고등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결과, 평소 미디어를 통해 뉴스나 시사정보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참여뿐 아니라 정치지식, 이견추구성향, 관용성 등 정치사회적 역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원숙, 2019).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정치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정치사회화 효과도 관찰되고 있다. 요컨대, 19대 대선기간 중 유튜브 정치동영상시청은 정치효능감이나 정치관심을 높임으로써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오대영, 2018).

청소년들의 경우 제도권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크다보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정보를 접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미디어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싱가포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에 주목하는 것이 전통적인 정치참여의사와 온라인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다(Skoric &

Poor, 2013). 반면, 페이스북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애착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정치참여의사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정치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이 연구는 후기청소년들의 온,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SNS 보다 전통적인 매체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2) 정치대화

매체요인과 더불어 정치적 대화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부모나 친구와의 정치대화가 그들의 정치참여의사나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간의 정치대화는 정치관심과 정치참여, 이견추구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송원숙, 2019). 즉 또래와의 정치대화는 청소년들의 시민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견추구성향은 다른 정치적 입장에 노출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진 정보에 많은 노출이 이뤄지는 디지털미디어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다(송원숙, 2019).

부모 또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와의 정치대화는 청소년의 비통상적 참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인, 2017). 앞서 언급했듯이, 비통상적 참여행동은 투표와 같은 제도화된 참여행동과 달리 집회나 시위, 서명, 불매운동 등 제도화되지 않은 정치적 행위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해 대화나 토론을 자주 할수록 제도적 참여 뿐 아니라 대안적 참여의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은미, 양소은, 2013). 가족내 정치소통은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환경문제나 인권문제 등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김은미, 양소은, 2013).

정치대화는 미디어이용과 정치참여를 매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즉 매체 이용은 직접적으로 정치참여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요컨대, 2012년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치팟캐스트 이용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매체를 통한 정치대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곧 대선정치활동참여로 이어졌다(민영, 2015).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대화(오프라인 정치대화)는 정치팟캐스트와 정치참여를 매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누구와 얼마나 정치대화를 나누었느냐는 양적인 측면보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질적인 측면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정치적 이견노출 정도에 따른 정치사회화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많다. 가령, 미국의 한 연구결과 자신의 입장과 비슷한 사람들과 토론을 활발히 하는 것이 온라인정치참여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정도는 오히려 참여와 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Valenzuela et al., 2011). 또다른 연구에서도 SNS 상에서의 정치적 토론의 과정에서 타인의 정치적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수록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참여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 Heatherly & Lee, 2016).

이처럼 정치적 토론은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느냐에 따라 참여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정치심리적 요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이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참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정치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미디어정보에도 주목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관심을 정치적 참여나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수도권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촛불집회참여도 적극적이었다(이재철, 2019). 즉 정치관심은 통상적 정치참여 및 비통상적 정치참여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나 정당활동 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참여도 활발했다(민영, 주익현, 2007). 이재신과 이영수(2009)의 연구에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주의 등 정치적 관여가 높을수록 정치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가령, 정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기부, 서명운동, 특정제품불매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이창호, 모상현, 2012). 또한, 정치적 관심은 높은 투표의향과도 연관성이 있었다(이창호, 2012).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된다(류태건, 2011 참조). 전자는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치기구나 공직자가 시민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을 일컫는다. 가령, 투표해 봐야 현 정치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면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일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와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치관여가 높은 사람들은 17대 총선에서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송종길, 박상호, 2006). 하지만, 정치효능감이 모든 형태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수도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와 같은 관습적 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비관습적 참여(촛불집회 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재철, 2019).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를 다룬 연구는 정치효능감이 여러 정치참여유형 중 공공활동, 선거활동, 사적 접촉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류태건, 2011). 이 연구에서 공공활동은 시민단체가입, 공청회참석 등을 의미하고 선거활동은 투표권유나 선거집회참여 등을 가리키며 사적 접촉활동은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효능감은 통상적 참여행동(학교투표경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비통상적 참여행동(서명, 집회참여 등)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김영인, 2017).

이처럼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기존 연구들은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 온라인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 1. 온라인설문조사
- 2. 면접조사
- 3. 소결



1. 온라인설문조사

1) 표집방법

본 연구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온라인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조사업체에 관련 조사를 의뢰하였다. 해당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만18세 (2001년 4월 17일 ~ 2002년 4월 16일 출생자) 패널은 총 8,021명이다. 이 패널 중에서 2,770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이중 300명이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2,470명은 고등학생이 아니거나 21대 총선 미투표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는 총선이 끝난후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고 본원 IRB 승인을 받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만18세 청소년 300명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즉 남학생이 48.7%, 여학생이 51.3%를 차지했고 조사참여자 전원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지역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표 III-1 응답자 인적 사항

성별	남성	146	48.7
	여성	154	51.3
학년	고등학교 3학년	300	100.0
거주지역별	서울	59	19.7
	경기/인천	90	30.0
	대전/세종/충청	36	12.0
	광주/전라	27	9.0
	대구/경북	33	11.0
	부산/울산/경남	43	14.3
	강원/제주	12	4.0
가정 형편	상	103	34.3
	중	125	41.7
	하	72	24.0
계		300	100.0

주. 가정형편의 경우 상(6~7점), 중(3~5점), 하(1~2점)로 리코딩함.

2) 조사문항

먼저,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선택기준, 선거정보관련 뉴스미디어이용정도, 선거활동, 정치대화 등을 질문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선거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후보자의 공약, 정당, 능력, 이미지, 청렴성, 학력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선거관련 뉴스미디어 이용정도는 TV, SNS, 포털 뿐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튜브 이용정도로 측정하였다. 선거활동은 정치집회나 연설 참가, 투표권유활동 등 오프라인 참여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정치관련 게시글 올리기, 온라인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오프라인, 온라인정치참여를 다룬 기존 연구(도묘연, 2015; 민영, 2015)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친구, 가족, 주변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권유를 받았는지도 측정하였다. 선거나 정치관련 대화는 친구, 가족, 온라인상의 대화 등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의 이견노출경험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논의(최지향, 2015)를 참고하여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내가 지지하는 선거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와 “온라인 상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내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진 글들을 읽은 적이 있다” 등 세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후보자연설행위나 명함배포와 같은 선거활동이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정치참여와 관련한 변인들 중 정치관심은 김은미와 양소은(2013)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적인 이슈, 정부정책 등에 대한 관심정도로 측정하였다. 정치효능감은 김명정(2009)과 정과 동료들(Jung et al., 2011)을 참조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내적 정치효능감은 “나는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와 같이 세 문항으로 이뤄져 있고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치제도나 정치인은 나같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와 같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치관용은 골레비오스카(Golebioska)가 사용한 척도를 우리사회에 맞게 변용해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정일권, 이준웅, 배영, 2013 참조). 즉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안팎에서의 정치활동경험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의선거나 청소년의회활동, 정치토론대회참가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였다.

3) 조사결과

(1) 후보자 선택 기준

응답자들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42.0%)을 기준으로 특정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27.7%를 차지했고 후보자의 청렴성도 11.7%의 응답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투표할 때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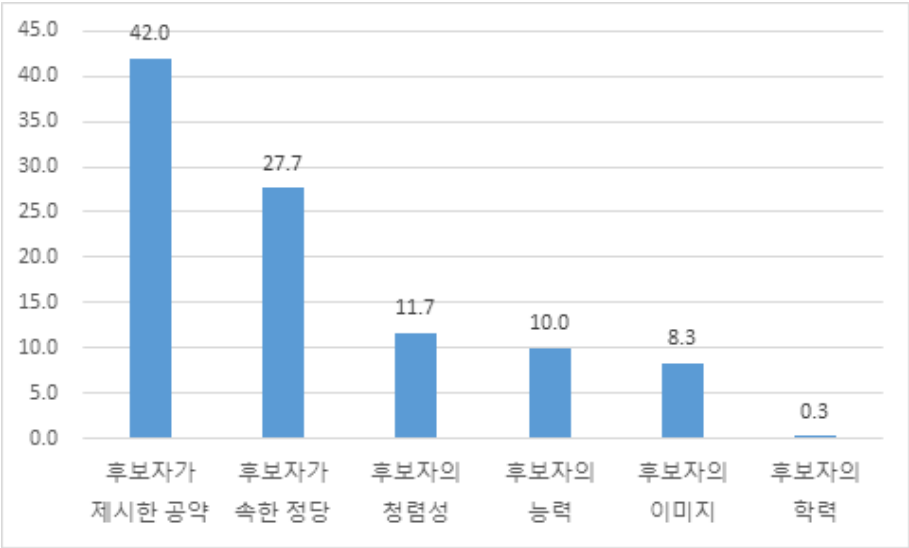


그림 III-1. 후보선택기준

(2) 선거정보이용 매체

응답자들이 선거기간동안 선거나 정치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포털뉴스(85.7%)로 나타났고 TV 뉴스가 71.3%로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57.3%로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비록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지만 TV뉴스는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정치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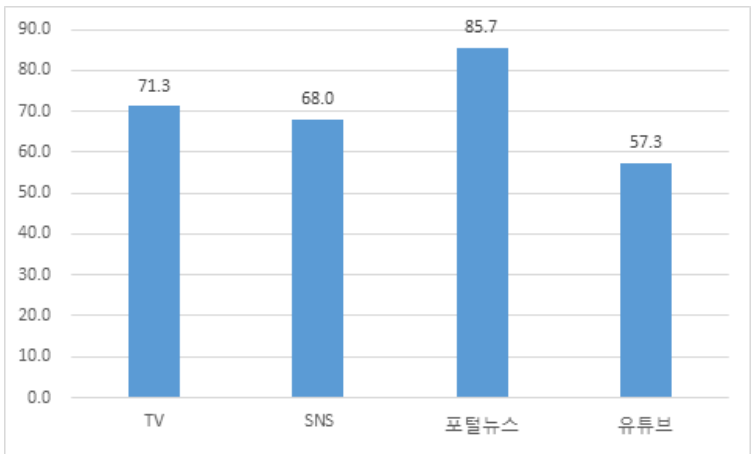


그림 III-2. 선거정보이용매체

주. 가끔 이용하였다, 자주 이용하였다, 늘 이용하였다는 합친 비율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V 뉴스 및 선거토론의 경우 남성(75.3%)이 여성(67.5%)보다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별로 볼 경우 상집단(74.8%)이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표 III-2 TV뉴스 및 선거토론 이용 정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자주 이용하였다	늘 이용하였다	계
	전체	10.7	18.0	40.3	26.0	5.0	100.0
성별	남성	10.3	14.4	43.8	25.3	6.2	100.0
	여성	11.0	21.4	37.0	26.6	3.9	100.0
가정 형편	상	8.7	16.5	36.9	31.1	6.8	100.0
	중	10.4	19.2	42.4	23.2	4.8	100.0
	하	13.9	18.1	41.7	23.6	2.8	100.0

SNS의 경우 남학생(70.5%)이 여학생(65.6%)보다 약간 더 많이 이용하였고 소득수준이 상(73.8%)인 집단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표 III-3 SNS 이용 정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자주 이용하였다	늘 이용하였다	계
	전체	14.0	18.0	28.3	26.7	13.0	100.0
성별	남성	12.3	17.1	31.5	26.7	12.3	100.0
	여성	15.6	18.8	25.3	26.6	13.6	100.0
가정 형편	상	12.6	13.6	24.3	31.1	18.4	100.0
	중	18.4	20.8	28.0	24.0	8.8	100.0
	하	8.3	19.4	34.7	25.0	12.5	100.0

포털뉴스의 경우 남학생(84.9%)보다 여학생(86.4%)의 이용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90.3%)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 포털뉴스 이용 정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자주 이용하였다	늘 이용하였다	계
	전체	6.3	8.0	33.0	39.3	13.3	100.0
성별	남성	8.2	6.8	34.2	37.0	13.7	100.0
	여성	4.5	9.1	31.8	41.6	13.0	100.0
가정 형편	상	2.9	6.8	35.0	36.9	18.4	100.0
	중	9.6	7.2	32.8	41.6	8.8	100.0
	하	5.6	11.1	30.6	38.9	13.9	100.0

유튜브의 경우 남학생(63.0%)이 여학생(51.9%)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이 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66.0%)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표 III-5 유튜브 이용 정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자주 이용하였다	늘 이용하였다	계
	전체	20.3	22.3	27.0	21.7	8.7	100.0
성별	남성	18.5	18.5	25.3	27.4	10.3	100.0
	여성	22.1	26.0	28.6	16.2	7.1	100.0
가정 형편	상	13.6	20.4	29.1	23.3	13.6	100.0
	중	28.0	23.2	24.8	19.2	4.8	100.0
	하	16.7	23.6	27.8	23.6	8.3	100.0

(3) 선거활동경험

선거기간동안 아래 [그림 Ⅲ-3]의 선거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친구나 가족 등 주위사람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3%로 가장 높았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웹사이트나 SNS 등을 접속하는 활동도 전체응답자 중 34.7%가 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을 찾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거자원봉사활동, 후원활동, 정치집회나 연설회 등 오프라인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관련 정보를 퍼나르거나 공유하는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선거권을 가진 만큼 친구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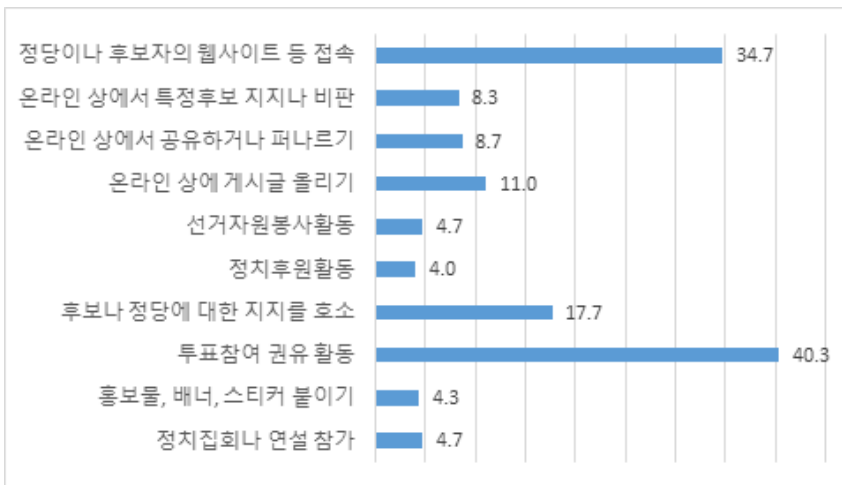


그림 Ⅲ-3. 선거활동경험(%)

전체 응답자의 40.7%는 위에 열거된 선거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활동에 참가한 것이다. 10가지 정치참여활동 중 한번 참여한 학생은 전체의 27.0%로 가장 많았고 두 번 참여한 학생은 14.3%였다. 4회 이상 참여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0.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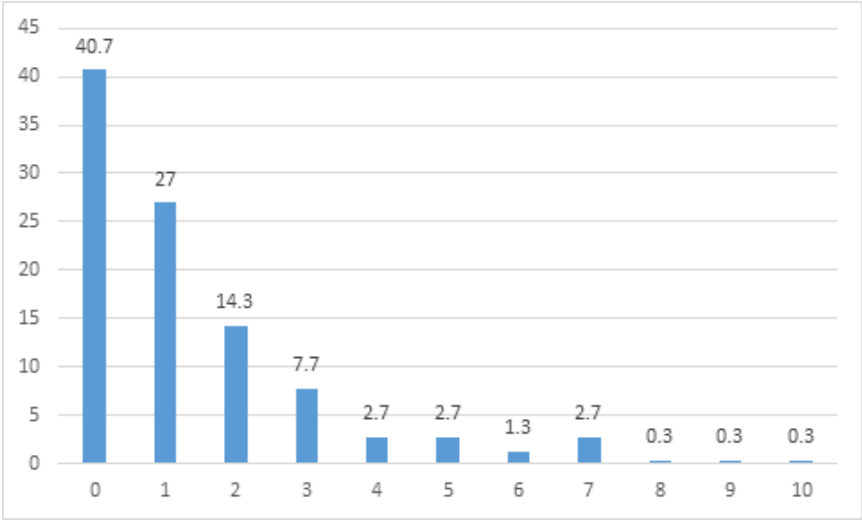


그림 Ⅲ-4. 선거활동참여빈도(%)

(4)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선거운동 권유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선거활동을 할 때 주위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권유를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위에서 열거된 선거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122명의 학생들이 이 질문에서 배제되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가족으로부터의 권유(56.2%)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나 가족을 제외한 주변사람들로부터의 권유는 30.4%, 친구로부터의 권유는 28.1%로 드러나 가족이 청소년들의 선거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I -6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선거운동 권유(% , N=178명)

친구로부터의 권유		전혀 받지 않았다	거의 받지 않았다	가끔 받았다	자주 받았다	계
전체		46.6	25.3	23.0	5.1	100.0
성별	남성	44.0	25.3	25.3	5.3	100.0
	여성	48.5	25.2	21.4	4.9	100.0
가정 형편	상	37.7	23.2	31.9	7.2	100.0
	중	52.2	29.0	15.9	2.9	100.0
	하	52.5	22.5	20.0	5.0	100.0
가족으로부터의 권유		전혀 받지 않았다	거의 받지 않았다	가끔 받았다	자주 받았다	계
전체		27.5	16.3	36.0	20.2	100.0
성별	남성	28.0	17.3	33.3	21.3	100.0
	여성	27.2	15.5	37.9	19.4	100.0
가정 형편	상	30.4	13.0	30.4	26.1	100.0
	중	30.4	20.3	36.2	13.0	100.0
	하	17.5	15.0	45.0	22.5	100.0
친구나 가족을 제외한 주변 권유		전혀 받지 않았다	거의 받지 않았다	가끔 받았다	자주 받았다	계
전체		48.3	21.3	20.8	9.6	100.0
성별	남성	48.0	18.7	21.3	12.0	100.0
	여성	48.5	23.3	20.4	7.8	100.0
가정 형편	상	39.1	24.6	24.6	11.6	100.0
	중	53.6	18.8	23.2	4.3	100.0
	하	55.0	20.0	10.0	15.0	100.0

(5) 선거관련 대화

응답자들은 이번 선거기간동안 주로 가족(73.3%, 가끔했다와 자주했다를 합친

비율)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와 대화를 한 경우도 61.3%에 달했다. 반면, SNS나 카톡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6.7%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오프라인대화가 온라인공간을 통한 대화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7 선거관련 대화(%)

친구와의 대화		전혀 하지않았다	거의 하지않았다	가끔했다	자주했다	계
전체		21.3	17.3	49.3	12.0	100.0
성별	남성	23.3	12.3	52.1	12.3	100.0
	여성	19.5	22.1	46.8	11.7	100.0
가정 형편	상	18.4	12.6	50.5	18.4	100.0
	중	19.2	20.0	50.4	10.4	100.0
	하	29.2	19.4	45.8	5.6	100.0
가족과의 대화		전혀 하지않았다	거의 하지않았다	가끔했다	자주했다	계
전체		8.3	18.3	50.7	22.7	100.0
성별	남성	8.2	23.3	51.4	17.1	100.0
	여성	8.4	13.6	50.0	27.9	100.0
가정 형편	상	5.8	16.5	50.5	27.2	100.0
	중	8.8	20.0	54.4	16.8	100.0
	하	11.1	18.1	44.4	26.4	100.0
SNS를 통한 대화		전혀 하지않았다	거의 하지않았다	가끔했다	자주했다	계
전체		47.7	25.7	19.7	7.0	100.0
성별	남성	48.6	22.6	22.6	6.2	100.0
	여성	46.8	28.6	16.9	7.8	100.0
가정 형편	상	44.7	23.3	20.4	11.7	100.0
	중	48.0	28.0	20.0	4.0	100.0
	하	51.4	25.0	18.1	5.6	100.0

(6) 이견추구경험

응답자들이 선거기간동안 자신의 견해와 다른 글들을 읽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직접 토론에 참여한 경우는 16.7%로 가장 낮았고 대부분(64.7%) 자신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진 글들은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지지하는 선거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우도 45.0%로 나타나 절반에 약간 못미쳤다.

표 Ⅲ-8 이견추구경험(%)

후보자관련 대화		전혀 하지않았다	거의 하지않았다	가끔했다	자주했다	계
전체		30.0	25.0	35.3	9.7	100.0
성별	남성	34.2	24.7	30.8	10.3	100.0
	여성	26.0	25.3	39.6	9.1	100.0
가정 형편	상	24.3	20.4	43.7	11.7	100.0
	중	26.4	28.0	36.0	9.6	100.0
	하	44.4	26.4	22.2	6.9	100.0
온라인 상에서 다른 견해 글 읽기		전혀 하지않았다	거의 하지않았다	가끔했다	자주했다	계
전체		19.3	16.0	45.0	19.7	100.0
성별	남성	20.5	18.5	47.3	13.7	100.0
	여성	18.2	13.6	42.9	25.3	100.0
가정 형편	상	14.6	10.7	48.5	26.2	100.0
	중	19.2	17.6	46.4	16.8	100.0
	하	26.4	20.8	37.5	15.3	100.0
토론 참여		전혀 하지않았다	거의 하지않았다	가끔했다	자주했다	계
전체		57.7	25.7	13.7	3.0	100.0
성별	남성	52.1	28.8	17.1	2.1	100.0
	여성	63.0	22.7	10.4	3.9	100.0
가정 형편	상	49.5	25.2	18.4	6.8	100.0
	중	58.4	27.2	13.6	0.8	100.0
	하	68.1	23.6	6.9	1.4	100.0

(7) 학교안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흥미롭게도 응답자들은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많았다. 학교 안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 21.3%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고 학교 안에서의 후보자 연설행위에 대해서도 24%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학교 안에서의 후보자초청간담회 역시 31.0%가 허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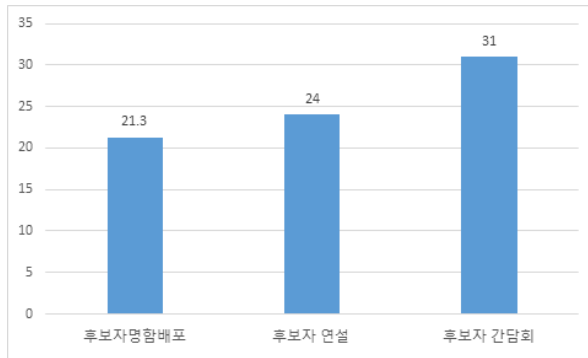


그림 III-5. 학교안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응답률(%)

(8) 학교안팎에서의 정치관련 활동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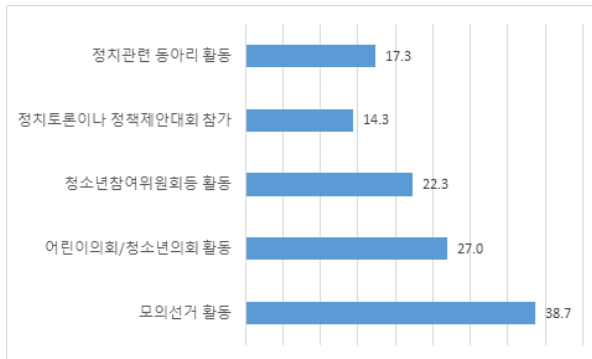


그림 III-6. 정치관련 활동경험(%)

응답자들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 안팎에서 정치관련 활동경험 중 모의선거(38.7%)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청소년의회활동경험이 27.0%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은 전체 응답자의 22.3%가 경험하였고 정치관련 동아리활동은 17.3%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참가경험은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9)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교육

응답자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모의선거교육(68.75%,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친 비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 수업시간을 활용한 정치토론의 활성화는 62.25%,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관련수업은 60.83%, 의회등 정치기관 견학은 60.33%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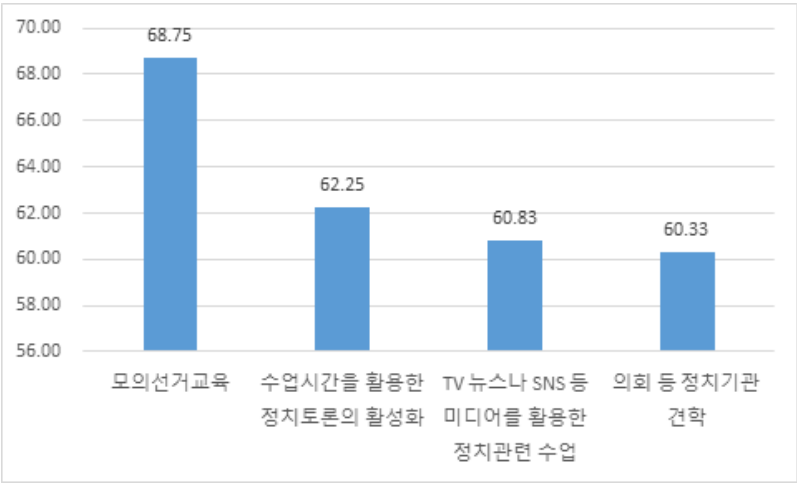


그림 III-7.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10) 청소년의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의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위에서 언급한 10가지의 선거활동을 다 합쳐서 구성하였다($M=1.38$, $SD=1.82$).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는 성별과 경제수준($M=4.14$, $SD=1.13$)을 포함한 인구학적 변인이 사용되었다. 또한 정치관심($M=2.61$, $SD=0.69$, 신뢰계수=0.874) 정치효능감($M=3.44$, $SD=0.77$, 신뢰계수=0.808), 정치관용($M=4.11$, $SD=0.83$, 신뢰계수=0.928)과 같은 정치심리적 변인도 기존 연구를 통해 정치참여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는 먼저 미디어 변인이 투입되었다. 즉 TV 뉴스 및 토론($M=2.97$, $SD=1.03$), SNS($M=3.07$, $SD=1.23$), 포털($M=3.45$, $SD=1.02$), 유튜브($M=2.76$, $SD=1.24$)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정치적 대화는 친구($M=2.52$, $SD=0.959$), 가족($M=2.88$, $SD=0.855$), 온라인($M=1.86$, $SD=0.968$)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의 예측요인을 살폈다. 또한 이견추구경험($M=2.17$, $SD=0.74$, 신뢰계수=0.696)은 단일 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안팎에서 경험한 다양한 경험들이 선거활동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III-9>에서도 나타나듯이,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3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된 R제곱=0.321). 미디어변인 중에는 SNS만이 선거활동참여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를 통해 선거나 정치관련정보를 많이 얻는 청소년일수록 선거참여활동도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과 다른 관점의 글을 많이 접하고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도 선거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관련 활동경험 중에는 정치동아리활동만이 선거활동참여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청소년의 선거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β (표준화계수)	t 값	R 제곱 변화량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025	0.476	0.037
	경제수준(1~7)	0.096	1.851	
정치심리적 변인	정치관심	-0.041	-0.593	0.055
	정치효능감	0.112	1.531	
	정치관용	-0.021	-0.330	
미디어	TV 뉴스 및 토론	-0.053	-0.937	0.088
	SNS	0.214***	3.588	
	포털뉴스	-0.031	-0.495	
	유튜브	0.057	0.940	
대화	친구	-0.118	-1.843	0.082
	가족	0.069	1.175	
	온라인	0.226***	3.563	
이견노출경험		0.231**	3.214	0.028
정치관련 활동경험	모의선거활동	-0.001	-0.017	0.031
	의회활동	-0.052	-0.843	
	청소년위원회활동	0.013	0.215	
	정치토론/제안대회	-0.004	-0.073	
	정치동아리활동	0.185**	3.247	
수정된 R 제곱		0.321		

** α .01, *** α .001

이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경우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대화가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원주민으로 자란 지금의 청소년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온라인공간을 통해 정치적 대화를 진지하게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SNS는

여전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치캠페인이 강화되고 있지만 유튜브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에 귀 기울이는 이견노출경험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교육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토론과정에 참여하는 정치토론의 활성화가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SNS의 등장으로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견에 노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글을 읽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안팎에서 경험한 여러 정치관련 활동 중에는 정치동아리활동이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모의선거나 청소년의회활동, 각종 청소년위원회활동,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는 이번 선거활동참여와는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매개모델에 따라 정치대화가 미디어이용과 정치참여를 매개하는지 SPSS 매크로 Process (Model=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5천번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표본크기와 동일한 수의 표본자료를 n번 복원추출하는 하는 것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홍세희, 2020). TV, SNS 등 개별미디어의 이용을 합쳐 미디어변인으로 묶었고 친구, 가족, 온라인과의 대화도 대화변인으로 합쳐 구성하였다. 성별, 경제수준,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정치관용은 통제변인으로 고려되었다.

그 결과 미디어이용은 정치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대화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미디어를 통해 정치관련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친구나 부모,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치대화를 활발히 하며 이는 곧 정치참여활동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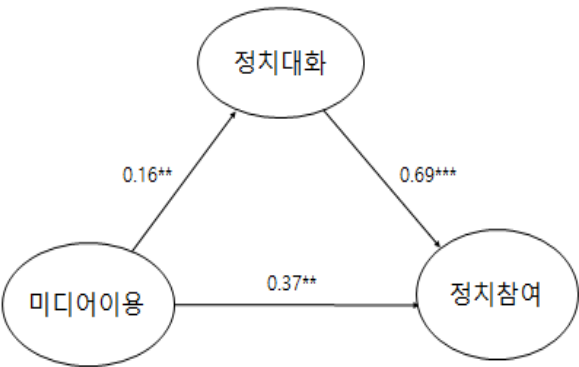


그림 Ⅲ-8. 정치대화를 통한 매개효과

이러한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ootLLCI=.03, BootULCI=.20).

표 Ⅲ-10 미디어이용과 정치참여와의 정치대화 매개효과

		효과크기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직접효과	미디어이용→정치참여	0.37	0.12	0.13	0.62
간접효과	미디어이용→정치대화→정치참여	0.11	0.04	0.03	0.20

통제변인들을 포함한 투입변인들은 전체변량의 18.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제곱=0.1897).

2. 면접조사

1) 면접참여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룹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2020년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총 4회 이뤄졌으며 모두 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본원 IRB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면접자 선정은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참여자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했던 청소년들이다. 인터뷰는 주로 모임공간에서 이뤄졌고 인터뷰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안팎이었다. 인터뷰진행은 미리 준비된 면접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묻고 면접참여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각 질문마다 사례를 많이 들어 참여자들의 이해를 구했다(자세한 인터뷰내용은 부록2 참조). 인터뷰내용은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인터뷰내용은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III-1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8명의 면접참여자들은 대학생 2명, 고등학교 3학년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청소년 1과 3은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기자로 일했고 청소년 2는 동일한 기관에서 인권자치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 6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청소년 7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은 청소년관련 활동경험이 없다.

표 III-11 면접참여자 인적 사항 및 인터뷰 일시/장소

연번	성별	학년	인터뷰 일시	인터뷰 장소
1	남	대학교 1학년	2020년 5월 16일(토) 14:00-15:30	군산 000 자치연구소
2	남	고 3	2020년 5월 16일(토) 14:00-15:30	군산 000 자치연구소

연번	성별	학년	인터뷰 일시	인터뷰 장소
3	남	고 3	2020년 5월 16일(토) 14:00-15:30	군산 000 자치연구소
4	여	고 3	2020년 5월 23일(토) 11:00-12:00	서현역 모임공간
5	여	고 3	2020년 5월 23일(토) 11:00-12:00	서현역 모임공간
6	남	대학교 1학년	2020년 5월 28일(목) 15:00-16:00	서울역 카페
7	여	고 3	2020년 5월 30일(토) 16:00-17:00	신천 모임공간
8	여	고 3	2020년 5월 30일(토) 16:00-17:00	신천 모임공간

2) 면접결과

(1) 투표를 한 소감

먼저, 지난 총선에 투표한 소감을 질문하였다. 인터뷰참가자들은 설레임, 떨림, 신기함, 색다른 느낌 등으로 투표소감을 밝혔다. 일부 청소년들은 인증샷을 찍어 자신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부모님과 함께 투표에 참가한 학생들이 많았다.

첫 투표이다 보니 신중하게 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주위로부터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투표를 했고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투표독려를 했다(청소년 1).

색다른 느낌이 있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학생회장 선거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투표했다. 인증샷은 별도로 찍지 않았다(청소년 5).

첫 투표이니 설렘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됐다. 선거하니까 뿌듯하고 좋았다. 혼자 가서 투표했다(청소년 6).

선거일 다음이 생일이어서 투표 못하는 줄 알았다. 처음 하는 것이어서 떨리고 신기했다. 학교에서 하는 학생회장 선거와 비슷했다. 부모님과 함께 가서 투표했다.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냈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다(청소년 8).

청소년 7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그는 모의선거를 체험해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투표를 하면서 떨렸다고 말한다.

투표를 하기 전에 많이 떨렸고 투표용지 찍고 나오면서 어른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부모님과 같이 가서 투표했다. 투표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니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청소년 2는 투표를 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한다.

설레는 기분이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있었고 관심사 밖이었는데 갑자기 투표권을 얻으니 기분이 좋았고 책임감도 생겼다. 학생이라는 소속감이 컸었는데 투표를 하니 시민이라는 소속감이 들었다. 가족과 함께 투표했고 나 혼자 투표 인증샷을 찍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자치단체의 선생님에게 보냈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생애 첫 투표를 하면서 설렘과 신기함을 느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도 동시에 갖게 됐다.

(2) 후보 및 비례정당 선택 기준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후보와 비례정당을 택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나 당이 가진 정책적 공약이나 비전이 참가자들의 기준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청소년들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도 평가기준이었다.

이번 선거가 처음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우선, 공약집을 꼼꼼히 살폈고 후보자가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통해 후보자의 말이나 경력, 인성 등을 살폈다. 대학생이다보니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나 정당을 뽑을 생각이어서 당마다 어떤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지 공약을 검색해 정당을 선택했다(청소년 1).

지난 1월쯤에 병원 생활하는 도중에 부모님이 알려줘 내가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됐다. 우편으로 온 공약집을 참고하여 청렴성은 기본이고 청소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 같다. 또한 현재 군산경제가 안 좋는데 군산경제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했다. 정당의 경우 후보자들보다 선택하기 어려웠다. 어렸을 때부터 군산에서 자라다보니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겨 군산경제를 잘 살려줄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다(청소년 3).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선택했다. 가령 교통시설같이 제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뽑았다. 학원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니기 불편했는데 어떤 후보가 트램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후보를 찍었다. 정당은 자세히 알지 못해 부모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다. 두 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둘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나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고 해당 정당을 선택했다(청소년 4).

후보자의 경우 첫째는 정당을 봤다. 지역에 한 사람이 오래 하다보니 공약을 보고 판단을 했다. 그 사람이 뭘 해 왔고 얼마나 정직한지를 봤다. 정당의 경우 정직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 것 같아서 특정 정당을 선택했다. 공약을 제대로 지킬수 있는지, 정직하고 바른 기준에서 정당을 선택했다(청소년 6).

청소년 7의 경우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정책이 마음에 들어 당을 선택했다고 언급하였고 코로나19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이 정책이 마음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 정당과 후보를 선택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들에게 공약은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해당공약을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는지도 주요 평가기준이었다.

(3) 선거에 관한 정보 획득 방법

청소년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특히 도움이 됐던 것은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홍보물이었다.

나는 TV도 잘 안 봐서인지 우편 홍보물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다. 지난 2월 보충 때 온라인수강하면서 선생님이 자율시간에 선거방법이나 의의를 소개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보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선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웠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SNS는 재미로 즐기지 기사 내용은 잘 보지 않는다. 또한 SNS에 가짜 뉴스가 많은데 나는 그걸 잘 구별하지 몰라 SNS를 통해 정치정보를 얻지 않고 있다(청소년 2).

나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 편인데 이 과정에서 정보를

얻었다. 또한 선거홍보물이 도움이 되었다. 선거에 대해 알아봐야 해서 포털 검색을 통해 충분히 숙지했다. 주로 어떻게 선거해야 하는지와 선거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SNS는 사생활침해우려로 안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TV나 선거홍보물에 의존해 정보를 얻었던 것 같다(청소년 3).

고3이다보니 선거에 몰두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거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집에 온 홍보물을 읽어보는 것이 다였다(청소년 4).

집으로 온 선거홍보물을 자세히 봤다. 제 이름이 우편물에 적혀 있어서 투표권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 내 생일이 2002년 4월 16일이어서 투표권이 없는 줄 알았다(청소년 8).

유튜브나 SNS 또한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이었다.

후보자들이 SNS 특히 페이스북을 많이 하면서 이용자와 소통을 한다. 후보자들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후보자 개인 뿐 아니라 공약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TV 토론의 경우 한두 번밖에 진행되지 않아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것 같다(청소년 1).

유튜브를 주로 이용했다.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 이름만 쳐도 관련 영상이 쭉 나온다. 후보든 정당이든 유튜브를 검색해서 봤다(청소년 6).

주로 유튜브영상을 봤다. 부모님이 집에서 유튜브 정치영상을 자주 보는데 같이 봤다. 간혹 관심이 생기는 주제가 있으면 검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청소년 7).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편은

아니었다. 면접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4의 이야기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고3이다보니 선거에 몰두하기가 힘들었고 그 결과 적극적으로 선거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즉 대학입시준비에 바쁜 고3학생들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배달된 선거홍보물에 의존하여 선거관련 정보를 획득했을 수 있다.

(4) 선거에 관한 주위사람들과의 대화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부모와 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가 처음이다 보니 많은 정보가 없어서 부모에게 의존한 것이다.

후보자의 장단점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부모가 나에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19 때문에 학교에 간 경우가 드물어 친구들과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청소년2).

부모님과 주로 대화를 나눴다. 두분이 입장이 달라서 양쪽에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소개하면서 왜 이 정당을 택해야 하는지 설명했다(청소년4).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희 부모님은 왜 그사람을 뽑을 거냐며 나에게 묻곤 했다. 아무 생각없이 찍지말고 이유를 갖고 찍어라고 강조했다.(청소년6).

주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랑 부모님이랑 정치색이 달라 서로 얘기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의 장, 단점에 대해 이야기했다(청소년8).

일부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청소년3은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어떤 정당이 이길 것인지 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 깊이 있는 정치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청소년 4의 경우도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친구들과 정치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

평소에 친구들과 정치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시간도 안 나고 재미가 없어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대신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나 인스타그램 이야기는 많이 하는 편이다. 이번 선거기간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 한명과 이야기한 것이 전부인 것 같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인 청소년 6은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부터 계속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친한 형과 누나로 정치토론을 했다고 한다. 주로 영상 통화로 했고 공수처 설치부터 시작해서 조국사태 등 의견을 나눴다. 또다른 대학생인 청소년 1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공약을 찾아 알려줬다. 그나마 인터뷰 참가자 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를 주위사람들과 나눈 경우에 속한다.

가족 중에서는 내가 제일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공약을 찾아서 부모님에게 알려줬다. 작년 고3 때 입시준비를 하면서 시사뉴스를 많이 알아야 하니까 친구들과 뉴스도 함께 보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학교를 안가다 보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정당이 이길 것인지,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인터뷰 참가자들은 부모와 많은 정치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친구들과 정치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깊이 있는 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거전까지 학교에 갈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던 점도 친구들과의 대화가 빈약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5) 선거운동

인터뷰 참가자들 대부분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나 정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보니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것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선거운동은 거의 안했다(청소년2).

후보나 정당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권유하는 것은 조심스러웠다. 선거권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우리가 선거권이 생긴 만큼 잘 뽑자 이런 이야기를 한게 다다(청소년3).

저도 잘 몰라서 남에게 권유하기까지는 못했다. 괜히 SNS에 정치계시글을 올렸다가 친구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조심하는 편이어서 정치관련 메시지를 올리거나 공유하지는 않았다(청소년4).

시간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학생이어서 여러모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청소년5).

일부 청소년들은 선거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적극적으로 개인 SNS에 선거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투표참여권유도 했다.

누굴 찍든 선거는 해달라고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 어떤 것이 부정선거가 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개인 SNS에 올려 공유했다. 또한 신중하게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올리기도 했다(청소년1).

베란다 앞에 철길 공원이 있는데 유세차량이 그곳에 대놓고 연설을 해서 몇 번 보고 들었다. 친구들이 전화를 해 투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오면 그 친구들에게 꼭 투표하라고 이야기했다. 투표안하면서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 투표하고 욕하라고 이야기 하곤 했다(청소년6).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람 어떠하면서 뽑아달라고 했다. 남에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청소년7).

이처럼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인터뷰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선거운동을 하는 일부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관련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국한돼 있었다.

(6) 선거에 관한 교육

이번 선거와 관련한 선거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참가자들은 드물었다. 대부분 부모를 통해 알게 되었거나 예전 수업시간에 들은 것이 많았다.

고등학교에서는 선거에 관한 네 가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만 알려주지 별도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같다(청소년1).

선거의 4대원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해야 할지만 포털을 통해 찾아봤다. 어떤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고 불법선거운동인지는 잘 모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자료가 있는지도 몰랐다(청소년3).

딱히 선거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다. 부모님이 알려줘서 투표권이 있다는 걸 알았다. 누구를 찍을지가 궁금했지 투표절차나 합법적 선거운동의 범위에 관해서는 신경을 안썼다(청소년4).

부모님이 알려줘서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투표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청소년5).

선거에 관한 교육을 받은게 별로 없다. 3월에 TV 보다가 내가 투표권이 있는 줄 알았다. 부모님에게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물어봤다. 투표에 관련된 홍보물이 오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라고 했다. 실제로 그걸 보고 투표요령을 숙지했다(청소년6).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거에 관한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을 통해 선거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봄방학 보충시간에 선생님이 선거에 관해 소개한 한 예능프로그램을 보라고 올려놓은 것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요령 등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 또한 당시 포스터를 만들어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짤막한 UCC를 촬영한 적이 있다(청소년2).

온라인 창의체험시간에 선거관련 영상을 올려줘서 알게 됐다. 투표요령, 투

표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을 본 게 거의 전부다(청소년8).

청소년 7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18세 선거권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왜 18세가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또한 모의선거도 해 봤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7) 평소 정치뉴스나 시사정보를 얻는 방법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평소 적극적으로 정치뉴스나 시사정보를 찾아보지는 않았다.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사안이 눈에 띄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방식이 많았다. 즉 우연히 뉴스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평상시 부모님에게서 많이 듣고 친구들에게도 듣는다. 하지만, 웬만하면 직접 뉴스를 찾아보지는 않는다(청소년2).

인터넷을 하다보면 흥미로운 뉴스를 보게 된다. TV 뉴스를 보다가 관심 있으면 인터넷 기사를 다시 찾아본다(청소년3).

집에 배달된 종이신문을 읽는 편이다. 관심이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다(청소년4).

정치뉴스보다는 시사정보를 많이 찾아본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는데 이를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 찾아보기도 한다.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나 민식이법 등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을 본다. 뭐지 하면서 보다가 이것저것 정보를 찾게 된다(청소년5).

뉴스를 찾아보는 편은 아니다. 부모님이 볼 때 옆에서 같이 본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많이 본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보게 된다(청소년8).

이와 달리 두 대학생들은 여러 뉴스를 비교해서 보는 습관을 가졌다.

네이버 접속을 통해 뉴스를 보는 편이다. 흥미로운 내용을 찾으면 여러 뉴스 매체를 비교해 보면서 뉴스를 이용하는 편이다. 여러 뉴스를 보더라도 뉴스 내용이 어려운 것 같다(청소년1).

유튜브로 뉴스채널들을 보면서 정치뉴스를 접한다. 개인채널들도 보면서 여러 매체를 비교하면서 본다. 집에서 종이신문 4개를 정기구독하는데 가끔 신문을 보기도 한다(청소년6).

이처럼 인터뷰참가자들은 평상시에 우연히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찾았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집에서 정기구독하는 신문에 의존하기도 했다.

(8)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안

인터뷰참가자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선거교육강화, 정치토론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정책이 있어도 자신에게 와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정책이 자신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높아질 것 같다(청소년1).

선거연령이 하향됐으니까 책임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을 하다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것 같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교폭력 같은 교육을 하는데 선거에 대한 교육도 매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책임감도 늘 것 같다.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도 필요하다. 논술시간에 선생님이 토론해 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토론을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한줄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과여서인지 주로 토론한 내용은 생체실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와 같은 식품유전자공학 윤리, 생물분야에 관한 토론을 많이 한다(청소년2).

선관위와 연계하여 정치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치흐름을 정확히 안내해주고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패스트트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고 왜 이슈화가 됐는지 몰랐다. 언론기관이 나서서 어려운 정치용어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젊은층의 정치인들을 등용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들도 젊은 층으로 채워지고 청소년들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청소년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주위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책이 현실화되고 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아야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가령, 이런 공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현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청소년4).

SNS에 자극적인 영상이 너무 많아 정치에 관심이 낮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를 재미있게 만들어 올리는 영상은 학생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가 높다. 정치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사건이 있을 경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미한다면 청소년들이 정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청소년5).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선거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친구들 중에서 재수생이 많은데 공부도 못하는데 웬 선거냐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정부가 나서서 투표하는 날은 학원을 다 쉬게 만들어 재수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대부분 제 친구들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아 투표를 했다. 여야가 엄청 싸워 보기 좋지 않은데 이런 모습들이 젊은층의 투표열기를 뺏는 것 같다.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청소년6).

학업에 바빠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학업에 관련된 청소년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주변 친구들은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치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정치토론은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다(청소년7).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은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다. 고등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치관련활동을 활발히 해서 생기부에 많이 기록해야 할 것 같다. 정치적인 주제와 관련한 발표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이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청소년8).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개발되고 실현돼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어려운 정치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9)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청소년 정책

인터뷰참가자들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청소년정책으로 학자금대출이자면제, 학교도서관 신문코너 설치지원, 학생들의 최저임금보장, 입시정책의 개편, 청소년

년범죄처벌강화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피선거권이나 교육감 선거연령을 낮춰 고등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도 해 줬으면 좋겠다(청소년1).

신문을 읽으려고 해도 학생들이 돈을 거둬 신문을 신청해 구입하는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스크랩해서 생기부에 올리려고 학생들이 신문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다. 학교 도서관에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신문코너를 설치하도록 지원해 학생들이 여러 신문을 읽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청소년2).

한번은 TV를 보는데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 달라는 내용을 봤다. 저소득청소년층에게 주거지원과 교육기회와 같은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에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좋다. 수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면 수능과 내신에 목매다는 현실이 안타깝다(청소년3).

주변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몰래몰래 짧게 한다.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학생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청소년4).

청소년 처벌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면 청소년의 경우에도 처벌이 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수위가 낮다보니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청소년5).

학업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공부만 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청소년연령이 24세까지니까 교통요금도 이에 맞게끔 개선됐으면 한다(청소년6).

청소년입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현행 제도는 입시비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청소년7).

학교마다 설문조사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걸 적어내면 선생님들이 정리하여 국회로 보내 학생들이 원하는 걸 실현했으면 좋겠다(청소년8).

이같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21대 국회에서 제기되고 해결되길 희망하였다.

3. 소결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친구들과도 정치적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참여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해보거나 이질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가 정치참여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정치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타인의 의견과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면접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청소년의 정치참여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관련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만큼 시사적인 이슈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를 논의하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면접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들은 수동적으로 정치정보를 접하고 선거관련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했다. 고3이라는 특성상 입시에 많은 관심을 쏟다보니 정치정보를 접할 기회를 자주 만들지 못했다. 이제 만18세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진 만큼 학교에서 선거와 관련한 상세한 교육을 관련 교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선거연령하향에 따른 청소년정책방안

- 1. 자문진
- 2. 자문내용

이 장에서는 선거연령하향에 따른 청소년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9명의 전문가 자문을 얻어 그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자문진

본 연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교육적 차원, 법제도적 차원 등등)에 대한 자문을 서면으로 받았다. 자문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즉 공직선거법개정 이후 청소년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문하였다. 또한, 평소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정치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정책내용 위주로 자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자문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모두 9명으로 3명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나 권리에 관한 연구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나머지 6명은 청소년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청소년의 참여나 정치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서면 자문에 응한 전문가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소속과 이름은 익명처리하였다.

표 IV-1 전문가 인적 사항

연번	소속	전문성
1	OO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아동·청소년 참여 및 인권 분야 전문가
2	OO교육연구원 박사	청소년문화 및 참여 전문가
3	OO선거연수원 교수	선거교육 및 시민교육 전문가
4	OOYMCA	청소년모의투표 진행
5	OO기념사업회	청소년정책제안 및 발표대회 주관 경험
6	OO마을학교	청소년대상 정치교육아카데미 실시
7	OO청소년연구소	18세 선거권 관련 청소년정책의제개발
8	OO청소년협회	18세 청소년대상 선거교육 책자 발간
9	OO청소년수련관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진행

2. 자문내용

1) 공직선거법개정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개정이후 청소년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실질적 청소년참여의 장 마련

먼저, 제도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라는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권리와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공공의 문제 해결에 청소년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도 권리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해져야 합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학습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등을 바탕으로 자치가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자치는 학교축제, 체육대회 등의 행사의 기획 운영 주체로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OO기념사업회).

OO청소년연구소장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들이 청소년들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지자체별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통한 조례에 의해 진행되는 청소년의회를 실제 지역사회 정책 참여 루트로 활용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바라보기

OO교육연구원 박사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이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며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복 입은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청소년들도 자신의 의견을 가진 정치적 주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단순히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이 정치적 문해력과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 18세 선거권을 부여한 지 6개월 안에 고교 3학년에게 주권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를 신설하고 지침과 부교재를 제공한 바와 같이 우리도 지침과 부교재 제작 및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O청소년수련관 팀장도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부정적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더 이상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이 나라의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그들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예비 선거권을 가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초, 중, 고 단계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OO청소년협회 사무총장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역시 연령별, 수준별 정치참여교육 프로그램(활동)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3) 모의선거의 법제화, 학생회법제화 등 법, 제도 개선

이번에 모의선거를 주관해 실시한 OGYMCA 종사자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청소년 정치참여확대과제를 제안하였다. 즉 우리사회도 이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이른 청소년시기부터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청소년모의선거 법제화
-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 (25세→18세)
- 교육감 선거연령 16세로 하향
- 16세부터 정당가입허용
- 학교학생회 법제화

OO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역시 학교영역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확대에 있어

오히려 저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영역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모순적 규정들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고 말한다. 특히 학생들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교육부 발행 지침 및 학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이다. 동 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의해 정해짐을 알 수 있다. 학칙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제2항의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42)에 의하여 학교 규칙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학교장은 학칙에 대한 자율적인 제·개정권과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통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7호에서는 학칙의 기재 내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에 의하여 운영과 조직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학칙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같은 규범 안에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규범구조적인 모순이 보인다.

(4) 교육시스템의 개선

OO선거연수원 교수는 입시위주의 현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세미나 형식이나 숙의, 토의의 요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하향되었지만 청소년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규 과목으로 “쉽게 풀어쓴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선거연수원의 교수, 초빙교수들이 청소년 대상 공직선거법을 강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선거연수원의 초빙교수들 중에는 퇴직한 선거관리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바,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강의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개정이후 우리사회가 청소년참여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 방안

(1) 학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 내에 민주시민교육과가 개설되는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3

년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 2종, 중등 2종)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정식교과가 아닌 한계 등으로 채택률이 상당히 낮다고 한다(OO기념사업회 자문 내용). 따라서,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관련 교과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국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보다 앞서서 선거연령을 인정한 일본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공공이라는 교과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현재 도덕과, 역사과, 사회과를 통합하여 교과를 개설하는 것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언급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중에서도 특히 권리의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교과(수학, 과학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식과 기술 등 내용적인 부분은 중점 교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 교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태도 부분 등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식과 이론, 참여 방법 등의 기술, 그리고 가치와 태도를 함양시키고 현실에서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성을 갖는 콘텐츠 등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OO기념사업회).

이 전문가는 또한 모의선거나 모의의회와 같은 모의정치교육프로그램이 학교에서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의 선거, 모의 의회 등 다양한 모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의’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 그 내용이 현실에서도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의선거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부여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모의의회(청소년의회, 교육청소년의회 등)의 프로그램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 등이 행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OO선거연수원 교수도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모의선거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O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대상별로 적합한 정치교육의 내용 및 프로그램개발을 강조하였다. 즉 미취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만화영상 등의 콘텐츠를 통한 헌법의 내용-특히 주권자로서 지위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여 전달하고 상황극을 통하여 직접 참여(선거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하여 헌법·민주주의·인권·정의의 가치와의 연계 하에서 선거제도 및 선거참여에 대한 교육과 현행 선거법등 정치관계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지역사회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정치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담당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내 정치교육만으로는 청소년정치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자치분권의 시대, 지역사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정치교육 과정으로 '교육청 - 지자체 - 학교 -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정치교육생태계(지역 인적·물적 자원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정치교육 원칙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 되어야 한다. 정치교육의 주체가 학생·학부모·교사라는 삼각의 틀을 다변화 시켜서 지역사회나 정당,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시민단체나 재능 기부자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정

치교육 주체들이 연대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안 정치교육과 학교 밖 정치교육의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OOYMCA).

(3) 청소년주도의 정책참여 강화

OO교육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정책마켓은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인 몽실학교에서 2017년 실시한 일종의 정책박람회로 이 학교는 2017년부터 해마다 정책마켓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정책마켓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우수 정책 사례를 실질적 구매자(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청 관계자, 시의원 및 구의원, 시민단체, 관심있는 시민 등)에게 판매하면서 정책 현실화를 촉진하였다. 당시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팀별로 토론을 통해 30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고 한다(조운정, 2018). 이 중에는 청소년복지 및 안전, 노동과 관련한 안전과 교육제도와 관련된 안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행사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 참가하여 30개의 정책을 모두 구매하였고 관련 부서에서는 구매한 정책실행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조운정, 2018).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바꾸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시민활동 참여 구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약을 만들어 정당에 제안하고,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이 공약을 실천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청소년 공약 지킴이” 프로젝트도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OO선거연수원 교수).

(4) 학교에서의 정치활동 허용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지만 아직까지 학

교에서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OO청소년연구소장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정치활동을 매우 불순하고 문제로 보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당 가입 뿐 아니라 학교 내 정치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생자치를 위해서 학생회가 법제화 되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민주시민교육의 토대 구축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을 강조했다. 가령, OO선거연수원 교수는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장기적 안목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꾸준히 정치·선거교육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O마을학교에서 정치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도 정치교육 전문기관의 설립과 정치교육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하였다. 즉 정권교체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헌법적) 기관으로 중앙 단위, 광역/지역 단위의 정치교육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정치교육을 지원하고, 추후 독립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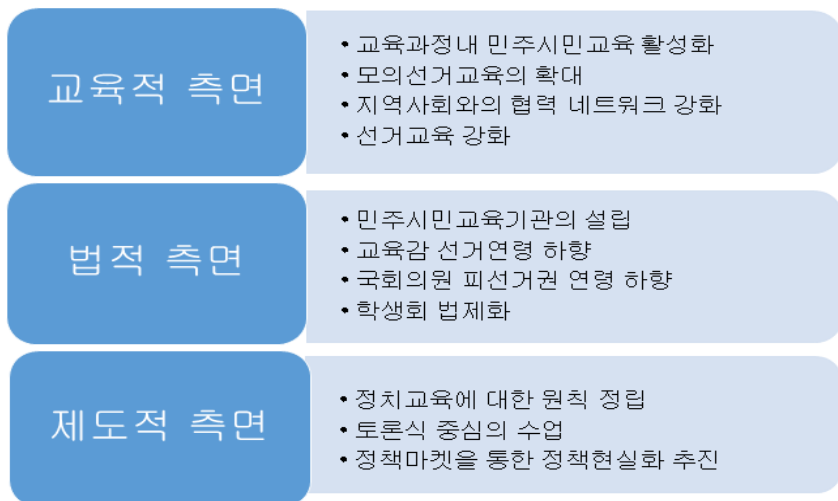


그림 IV-1.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제5장 정책제언

- 1. 선거교육 확대
- 2. 정치토론의 활성화
- 3. 자기주도적 청소년정치참여의 강화
- 4.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참여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 5. 정치교육에 관한 원칙 정립
- 6.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적 이해 강화
- 7. 청소년참여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기능 강화



1. 선거교육 확대

앞서 살폈듯이, 중앙선거위는 이번 선거에서 학교에서의 모의선거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요 선거가 있을 때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해 왔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15년 선거법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면서 주권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선거교육이 학교에서 15시간 가량 이뤄진바 있다(고선규, 2018). 우리사회도 학교에서의 모의선거는 불허하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모의선거는 허용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모의선거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YMCA 전국연맹 등 시민단체가 주관한 모의투표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5월 9일 당시 전국 30여개 투표소에서의 오프라인투표와 온라인투표(www.18vote.net) 과정을 통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실제 투표와 동일하게 모의투표를 실시하였다(중앙일보, 2017. 5. 11). 모의투표 결과발표도 실제선거결과발표와 동시에 이뤄졌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의 모의선거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에서 모의투표가 활성화 돼 청소년들이 투표과정을 이해하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선거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가령, 핀란드의 경우는 실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가 이뤄지며 그 결과는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 특히 주요 선거를 앞두고 학교에서 열리는 수백개의 선거패널토론회에는 정당관계자들과 후보자들이 초청되기도 한다. 캐나다의 학생 투표프로그램은 실제 선거기간동안 실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모의선거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선거관리기구와의 지원하에 실시되고 있다(송수환, 2016). 최종투표결과는 실제선거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고 한다. 앞서 논의한 일본의 경우도 선관위의 협조 하에 학교 내에서 실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실제 선거가 끝난 후에 발표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정책토론을 하거나 모의청원, 모의국회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제 우리사회도 만18세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교과과정을 통해 선거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선거의 역사, 의미, 선거하는 방법,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 입법과정 등을 배우게 된다.

이같은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고3학생들은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면접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정보를 찾아본 인터뷰참가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이들은 어떤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고 어떤 것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인지를 잘 확인하지 못했다. 많은 경우 적극적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도모하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정선거보도안내서>란 책자를 발간해 작년부터 ‘함께읽는 선거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시현, 2020). 가령,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보도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선거시 여론조사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도하거나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뉴스 기사를 내보내는 등 언론보도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표방하는 언론이 편향되고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청소년들의 경우 선거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보도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이들은 미디어리터러시역량이 갖춰져야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가능해야 선거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적 이해란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할 것이다.

2. 정치토론의 활성화

앞서 논의했듯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는 이견노출경험 및 정치동아리활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학교 수업시간에서의 정치토론경험은 청소년의 시민성 증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이윤주, 2020). 이 같은 결과는 정치토론이 활성화 돼야 청소년의 정치참여도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교에서의 정치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하에서 청소년들은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인 제도나 체계에 대해 암기하기에 바쁜 실정이

다. <법과 정치>라는 교과목이 고등학교에 개설돼 있지만 이는 선택과목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경우 교실내 토론의 개방성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즉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들 역시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치관련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토론이 일상화돼야 한다. 즉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지닌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만 특정입장에 갇혀 편협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SNS의 확산으로 태도극화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어떤 사안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들은 무조건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소통되는 정치적 토론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토론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이를 주의깊게 경청하는 관용적 태도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정치동아리를 활성화하거나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정치토론모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공공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관련 정보를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라도 정치토론은 학교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장려돼야 한다.

3. 자기주도적 청소년정치참여의 강화

지방의 한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지역의 후보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참여기반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아래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먼저

청소년정책참여 TF를 구성하였다. 이후 지역에 있는 13세-23세 청소년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치, 교육·인권, 복지, 청년관련 정책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공약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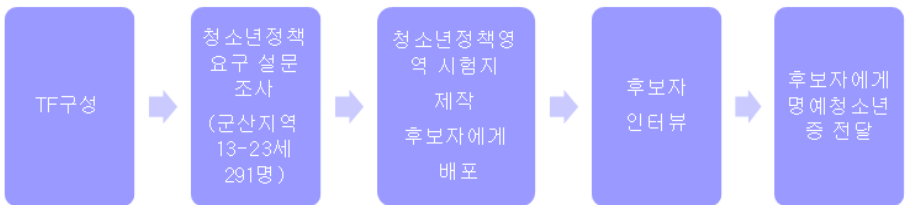


그림 V-1. 청소년정치참여과정

* 출처: 청소년자치연구소(2020.5).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3-4쪽을 토대로 저자가 구성함.

여기서 나온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들에게 수능시험지 형태로 의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와 후보자들과의 인터뷰내용은 지역언론에 소개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후보자들도 자연스럽게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인 몽실학교에서 실시한 정책마켓사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마켓은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주체화되고 자신의 문제와 밀접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조윤정, 2018).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2013년부터 ‘Youth 아고라’라는 지역사회 청소년참여모델을 운영하고 있다(진선미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거연수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0. 7. 17). 관내 청소년 누구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된다. 이렇게 발굴된 정책들은 청소년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제화되고 이후 정책담당관이나 시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반영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과정을 밟는다.

이 같은 정치참여과정은 청소년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매우 값지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지도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활동은 이미 청소년활동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과정도 스스로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투표를 비롯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초, 중, 고 시절 다양한 청소년참여활동이 이뤄질 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투표도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곧 성인기의 정치참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들이 일찍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18세 선거권시대 청소년시설이나 단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사실, 그동안 청소년활동은 문화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에 국한돼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비교적 소홀하였다. 18세 선거권을 계기로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모의선거교육프로그램이나 시사/정치토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공모사업시 청소년정치참여의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에서 시군구의회나 지자체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정치교육과 참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정치교육에 관한 원칙 정립

올 초 선거연령하향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정치권이나 학교 할 것 없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 토론회에서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모의선거 등 참정권교육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1.30.).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선관위는 학교에서의 모의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는 고3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됨에 따라 교실이 정치화 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관한 큰 틀이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교육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1976년 당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진영의 정치인들과 교육자들은 보이텔스바흐라는 소도시에 모여 정치교육의 큰 틀에 합의했다(장은주, 2017). 이 합의에 의하면, 교사는 어떤 수단을 써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해서는 안되고 논쟁적인 정치사안은 수업시간에도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향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모여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심성보(2017)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념교육

이 아닌 시민교육으로서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며 인성교육/인격교육과의 접목도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정치인이 학교에 출입하여 학생들에게 선거활동을 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치인들이 학교에 출입하여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을 하는 행위를 반대하였다. 실제로 이번 선거기간동안 어떤 후보자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명함을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후보자는 학교담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즉 후보자들의 학교선거운동에 대한 원칙이 없다보니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선관위, 정당 등이 함께 논의하여 정치인들의 학교방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자들이 자주 학교를 방문한다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될 여지도 다분히 있다. 특히 정치인들의 학교방문에 대해 학생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학교밖에서의 선거운동을 장려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한편, 장은주(2019)는 앞서 언급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과 같은 우리사회의 민주시민교육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280-282쪽). 첫 번째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이념과 전망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은 주입식 교화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이 되서는 안되고 시민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및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의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특정정파나 정치진영이 교육에 개입하여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논쟁성의 원칙'이다. 즉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교육과정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는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완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규주 교수 또한 청소년정책포럼에서 국내상황에 맞는 독일식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제시하였다(진선미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거연수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0. 7. 17). 첫 번째는 학습자자율성제고 원칙으로 국가나 교사 등이 학생의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논쟁성재현 원칙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은 논쟁의 형태로 수업시간에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원칙으로 학생들이 스스로를 주권자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평가최소화에 관련된 것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한 평가가 모든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학습자의 가치나 태도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사회에서도 좌, 우 할 것 없이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일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확립돼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6.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적 이해 강화

청소년유권자들이 선거의 의미, 선거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최근들어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 강화되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어 선거단원 교육시 선거보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함께 읽는 선거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시현, 2020). 초등학생의 경우 2시간 수업을 통해 투표

를 직접 체험하고 선거관련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중, 고등 학생의 경우 4차시 수업을 통해 비판적 기사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들어 뉴스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짜뉴스를 선별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보도의 경우도 SNS 등을 통해 허위정보들이 범람하는 만큼 학생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하는 여러 편향된 보도가 나타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유권자들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유권자들이 온라인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리터러시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라는 특정한 계기를 통해 선거에 관한 교육을 하기보다는 정치관련 교과목 단원을 통해 선거정보를 올바르게 찾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시설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유권자의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적 이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청소년참여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기능 강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이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높았다. 일부 언론은 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떤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보도했다. 또한 18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특히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역할은 미미했다. 가령, 핀란드의 경우 청소년모의선거는 실제 선거와 똑같이 이뤄지며 그 결과는 공영방

송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생중계되고 주요 언론사들이 자세히 보도한다고 한다(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1.30.).

따라서, 18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령, KBS 시사프로그램과 같이 비중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패널로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도 방송에 담을 필요가 있다. 앞서, 한 자치연구소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역언론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하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유권자의 관심과 이들의 목소리를 언론기관이 충분히 보도해야 정치권에서 청소년문제나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영방송이나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청소년들의 주장이 공론화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선규 (2018). 일본의 18세 선거권 실시과정에서 총무성시민단체정당의 역할분 석과 시사점. 선거연구, 9, 53-76.
- 김시현 (2020). 선거뉴스 함께 읽는 꿀팁 알려드려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리 터러시, 12, 18-25.
- 김명정 (2009).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민주적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치·정보연구, 12(2), 119-142.
- 김시현 (2020). 선거뉴스 함께 읽는 꿀팁 알려드려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리 터러시, 봄호, 18-25.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참여경험과 시민성변화. 청소년학 연구, 14(6), 99-127.
- 김영인 (2017). 청소년참여의 영향요인 탐색: 통상적 비통상적 참여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52권, 37-71.
- 김영지, 김희진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2019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미, 양소은 (2013).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57(1), 305-334.
-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조건- 정치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1), 81-110.
- 김효연 (2018). 시민의 확장. 서울: 스리체어스.

- 남미자, 김영미, 손어진, 장아름 (2019). **민주주의 실현조건으로서 청소년정치참여확대방안**.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도묘연 (2015).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행태분석: 18대 대선의 사례. *국제정치연구*, 18(1), 175-196.
- 류태건 (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정치학회보*, 21집 3호, 383-416.
- 민영 (2015). 정치풍자와 참여적 시민성: 정치팟캐스트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학보*, 29권 3호, 36-69.
- 민영, 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90-217.
- 민희, 윤성이 (2016). 감정과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50(1), 271-294.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1.30.).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세미나 자료집.
- 송수환 (2016). 공직선거법상 미래유권자의 선거참여도입방안: 캐나다의 학생투표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80호, 1-38.
- 송원숙 (2019).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역량을 높여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 친구, 미디어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3호, 45-83.
- 송종길, 박상호 (2006). 정치관여도, 미디어중요성, 정치냉소주의와 정치효능감이 정치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166-197.
- 심성보 (201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67, 93-122.
- 오대영 (2018). 유튜브 정치동영상 이용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학습효과: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4-1호, 97-115.
- 이재신, 이영수 (2009). 정치정보습득, 관여도, 정치적 불만과 정치참여유형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183-205.
- 이재철 (2019). 정치참여의 유형비교: 수도권 시민의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 분석. *현대정치연구*, 12(3), 35-67.

- 이창호 (2012). 소셜미디어가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 및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7, 231-259.
- 이창호 (2017).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창호, 모상현 (2012).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탈물질주의가치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4호, 143-164.
- 이창호·이윤주 (2020). SNS 활동 및 학교내 정치교육경험이 고등학생의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선거연구, 12호, 53-75.
- 이창호, 정의철 (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참여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3), 457-491.
- 장은주 (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피어나.
- 장은주 (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심성보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261-300쪽). 서울: 살림터.
- 조운정 (2018). 청소년주도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4), 199-227.
- 진선미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거연수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0. 7. 17). 18세 선거권이후 청소년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포럼 자료집.
- 청소년자치연구소 (2020. 5).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 최지향 (2015).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사이트내에서의 이견노출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견관찰, 이견관여, 당파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5), 152-177.
- 하종원 (2006). 대학생의 인터넷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호, 369-406.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2019 10대 청소년미디어이용조사.
- 홍세희 (2020). 매개, 조절,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숍 시리즈 73. 박영사.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강재구 (2020.3.30.). 18살 투표권 주어졌지만...중·고교 절반이상이 정치활동제한.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786.html에서 2020년 5월 25일 인출.

고희진, 김상범 (2020.4.9.). [선택 4·15] 18세 유권자 “사람이 덜된 분들은 뽑지 말아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82155005&code=940100 에서 2020년 4월 9일 인출.

구미현 (2020.2.25.). ‘두발·복장, 소지품검사삭제’ 울산시교육청, 학교규칙 바꾼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25_0000930954&cID=10899&pID=10800에서 2020년 4월 9일 인출.

정성학 (2020.4.6.). 청소년, “정당보단 공약보고 찍는다”. 새전북신문.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0998>에서 2020년 4월 8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 7.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결과 공개.

중앙일보 (2017.5.10). [TONG] “우리도 뽑았다 대통령!”...19대 대선 모의투표 현장. <http://news.joins.com/article/21561579> 에서 2020년 6월 1일 인출.

Jung, N., Kim, Y., & Gil de Zuniga, H. (2011).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and efficacy i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4, 407-430.

Lu, Y., Heatherly, K. A., & Lee, J. K. (2016). Cross-cutting exposure on social networking site: The effects of SNS discussion disagreement on political particip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9, 74-81.

<http://dx.doi.org/10.1016/j.chb.2016.01.030>

- Pattie, C., Seyd, P., & Whiteley, P. (2003). Citizenship and civic engagement: Attitudes and behaviour in Britain. *Political Studies*, 51, 443-468.
- Skoric, M. M., & Poor, N. (2013). Youth engagement in Singapore: The interplay of social and traditional media.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7(2), 187-204. doi: 10.1080/08838151.2013.787076
- Valenzuela, S., Kim, Y., & Gil de Zúñiga, H. (2011). Social Networks that Matter: Exploring the Role of Political Discussion for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4(2), 163-184. doi: 10.1093/ijpor/edro37

○ — 부 록

- 1.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 조사
- 2. 만 18세 유권자 대상
면접 조사

부 록

1.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기간 이뤄진 정치참여실태 조사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의식 및 참여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기프트콘지급을 위한 연락처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학생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가요?

- 1) 예
- 2) 아니오 (설문중단)

학생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까?

- 1) 했다
- 2) 안했다 (설문중단)
- 3) 투표권이 없음 (설문중단)

문 1.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자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가지만 골라 주세요.

- 1)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
- 2) 후보자가 속한 정당
- 3) 후보자의 능력
- 4) 후보자의 이미지
- 5) 후보자의 청렴성
- 6) 후보자의 학력

문 2. 학생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선거나 정치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아래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 하였다	자주 이용 하였다	늘 이용 하였다
1) TV (뉴스 및 선거관련 토론)	①	②	③	④	⑤
2)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3) 포털뉴스 (네이버, 다음 등)	①	②	③	④	⑤
4) 유튜브	①	②	③	④	⑤

문 3. 학생은 선거기간 동안 아래의 선거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했다	안했다
1) 정치집회나 연설 참가	①	②

2) 정치관련 홍보물, 배너, 스티커 붙이기	①	②
3) 친구나 가족 등 주위사람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	①	②
4) 친구나 가족 등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①	②
5) 정치후원활동 (후원금납부 등)	①	②
6) 선거자원봉사활동	①	②
7) 온라인 상에 선거나 정치관련 게시물 올리기	①	②
8) 온라인 상에서 선거나 정치정보를 공유하거나 퍼나르기	①	②
9) 온라인 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	①	②
10) 정당이나 후보자의 웹사이트나 SNS 등 접속	①	②

문 4. 학생은 위 문 3에 열거된 선거운동을 할 때 주위 사람으로부터 선거운동 권유를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받지 않았다	거의 받지 않았다	가끔 받았다	자주 받았다
1) 친구로부터의 권유	①	②	③	④
2) 가족으로부터의 권유	①	②	③	④
3) 친구나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권유	①	②	③	④

문 5. 학생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선거나 정치관련 대화를 얼마나 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1) 친구와 선거나 정치관련 대화 나누기	①	②	③	④
2) 가족과 선거나 정치관련 대화 나누기	①	②	③	④
3) 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사람들과 정치적인 대화 나누기	①	②	③	④

문 6. 학생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아래에 열거된 경험을 어느 정도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1) 나는 내가 지지하는 선거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 상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내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진 글들을 읽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온라인 상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토론이 전개될 경우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7. 학생은 학교 안에서의 선거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허용돼야 한다	허용돼서는 안된다
1) 학교 안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①	②
2) 학교 안에서의 후보자 연설 행위	①	②
3) 학교 안에서의 후보자 초청 간담회	①	②

문 8. 학생은 평소 정치에 관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관심없다	별로 관심없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정치적인 이슈	①	②	③	④
2) 정부정책	①	②	③	④
3) 정당	①	②	③	④
4) 정치인	①	②	③	④
5) TV 정치토론	①	②	③	④

문 9.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치제도나 정치인은 나 같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중에도	①	②	③	④	⑤

수용할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도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학생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안팎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모의선거활동	①	②
2)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활동	①	②
3)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①	②
4)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참가	①	②
5) 정치관련 동아리활동	①	②

문 12. 학생은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아래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모의선거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수업시간을 활용한 정치토론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3) TV 뉴스나 SNS 등	①	②	③	④	⑤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관련 수업					
4) 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①	②	③	④	⑤

문 13. 학생의 성별은?

- 1) 남자
- 2) 여자

문 14. 몇학년인가요?

- 1) 고등학교 1학년
- 2) 고등학교 2학년
- 3) 고등학교 3학년

문 15.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만 18세 유권자 대상 면접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은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만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소감, 선거관련정보획득방법, 선거활동내용 등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 한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044-415-223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4. 나는 면담내용 녹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면접조사관련 정보수집 및 상품권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교, 이름, 성별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인터뷰 내용

인터뷰_

- 일시 : - 장소 :
-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 이름: - 성별:
- 학교: - 학년:
- 인터뷰 소요시간 :
- 인터뷰 내용

○ 투표를 한 소감 질문

○ 어떤 기준으로 정당 또는 후보를 선택했는지 질문

○ 선거에 관한 정보 획득 방법 질문

- 선거벽보, TV토론 시청, 정당홈페이지 방문, 선거홍보물 읽기, 중앙
선거위 사이트 방문,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방문, 교육청에서
제공한 선거교육 방송 시청 여부 등

○ 선거에 관해 주위사람들과의 대화 정도 질문

- 부모와의 대화
- 친구와의 대화
- 온라인 상에서의 대화(채팅, 댓글 등)

○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질문

- 오프라인 선거운동 (주위사람들에게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 투표참여권유 등)
- 온라인 선거운동 (선거관련 메시지를 게시판에 올리거나 공유하기, 지지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 등)

○ 선거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질문

○ 평소 어떻게 정치뉴스나 시사정보를 얻는지 질문

○ 평소 생각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안 질문

○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청소년 정책 질문

연구보고 20-R21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인 쇄 2020년 8월 12일

발 행 2020년 8월 1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0-R21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